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용어 분석

김은지⁰, 이영준^{*}

⁰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mail: gkskslawkd1@naver.com⁰, yjlee@knue.ac.kr^{*}

Analysis of Terms by Curriculum in 2015 Revised Curriculum for Digital Knowledge Education in 2022 Revised Curriculum

Eun-Ji Kim⁰, Young-Jun Lee^{*}

⁰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요약 ●

디지털 소양의 용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그동안은 디지털 소양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용어들이 각 교과 특성에 맞게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소양을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와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각 교과에서는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어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디지털 소양, 2022 개정 교육과정

I. Introduc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정책 방향(2022) 등이 발표됨에 따라 디지털 소양과 AI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는, 기초 소양의 범주를 확장하여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양 함양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 그동안 각 교과에서 사용되어 온 디지털 소양의 개념은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제각각이었으며,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양이라는 개념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 각 교과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의 정의

디지털 소양이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 2022년 2월 발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정책 방향 제안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활용 교육, 디지털 안전 교육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1].

III.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15의 총론에서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정보통신 활용 교육을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

2. 실과(기술·가정)/정보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과(기술과정)/정보과 교육과정에 실과 영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포스터 및 UCC를 제작할 때는 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인 ICT 활용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로 ICT 활용 소양이 사용되었다[4]. 정보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과 역량 중 하나인 ‘정보문화소양’은 정보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포함한다. 또다른 역량 중 하나인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4].

3. 수학과

수학 교과 역량에 포함되는 정보 처리 능력은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자료를 탐색하여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 분석, 평가하며, 분석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5].

4. 사회과

사회 교과 역량에 포함되는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6].

5. 음악과

음악 교과 역량에 포함되는 음악정보처리 역량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7].

6. 국어과

국어 교과 역량에 포함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8].

7. 과학과

과학 교과 역량에 포함된 과학적 문제 해결력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와 관련 있는 과학적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 내고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작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9].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각 교과에서 사용된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 소양은 언어, 수리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제안된 대로 디지털 소양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내용 체계 위계와 맞추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보 처리 능력, 정보 문화 소양, 지식정보처리역량 등으로 교과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왔던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디지털 소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 교과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2). Proposed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 [2] Ministry of Education (2021). The main point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 [3]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Overview
- [4] Ministry of Education (2020). Practical course (Technical course)/Information course (No. 2020-236)
- [5] Ministry of Education (2020). Mathematics and Curriculum (No. 2020-236)
- [6] Ministry of Education (2018). Social studies curriculum (No. 2018-162).
- [7]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and Curriculum (No. 2015-74).
- [8] Ministry of Education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No. 2015-74).
- [9] Ministry of Education (2015). Science Curriculum (No. 2015-74).